

# 빌립보서 2:10의 한글 번역에 대한 석의적 고찰

조충현\*

## 1. 도입

빌립보서 2:6-11은 매우 초기 기독교의 이해가 반영되어 있어 기독교론적으로 중요한 본문일 뿐만 아니라 빌립보서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본문이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따라서 이와 관련된 논문과 책들이 산적해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은 그리 놀랄 만한 일이 아니다. 제한된 지면 내에서 본문과 관련된 이슈들을 모두 다룰 수는 없으며 또한 이 글의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대신 필자는 개신교 한글 번역 성서들이 빌립보서 2:10, 특별히 바울이 채택한 우주론적 삼중 표현 ἐπουρανίων καὶ ἐπιγείων καὶ καταχθονίων을 어떻게 번역해 왔는지 살펴보고 문제의 구문에 대한 하나의 석의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2. 본론

### 2.1. 개신교 한글번역의 역사와 빌립보서 2:10

우리말 번역 성경 가운데 빌립보서는 1887년 발행된 한국 최초의 신약전서 『예수성교전서』에 처음으로 등장한다. 로스역으로 알려진 이 역본은 중국어 문리(文理) 성경을 기초로 하여 번역되었으며 어휘의 통일을 위해서 로스는 그리스어 성구사전을 사용했고 축자적 번역보다는 의미를 살려 조선식 관용어를 채택하는 경향이 강했다. 또한 번역원고의 수정을 위해서는 영어 개역성서(English Revised Version)와 마이어(Meyer)의 주석이 활용되었다.<sup>1)</sup> 이렇게 하여 번역된 빌립보서 2:10은 아래와 같다.<sup>2)</sup>

\* 남서울대학교 교양학부 전임강사, 신약신학.

1) 한영제 편, 『한국성서찬송가 100년』 (서울: 기독교문사, 1987), 14.

2) 이수정이 일본에서 진행했던 한한신약성서는 거의 완성되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그 중 사복음서와 사도행전만이 미국성서회사를 통해 발행되었다(Ibid., 17). 본문의 띄어쓰기 표기(/)는 본 저자에 의한 것이다.

하날과/까과/까알에/잇는/모단/무릅팍이/예수의/일흠에/굴고/  
모단/입이/하나님을/영화케/흐미

이후 국외에서 이루어진 번역본들 곧 로스역과 이수정역성서의 한계를 인식한 개신교 선교사들은 새로운 번역을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리하여 한국 최초의 신약인 『예수성교전서』가 발행된 1887년과 같은 해 서울에서 모든 선교사들이 모여 성서번역위원회를 조직하고 새로운 번역 사업에 착수했다.<sup>3)</sup> 특별히 우리의 관심의 대상이 되는 빌립보서는 선교사 언더우드(H. G. Underwood)에 의해 번역되어 1898년 『필립보인서』(상임성서위원회)라는 이름으로 처음 출판되었으며 다시 1900년 단편적으로 번역된 성서들을 모아 『신약전서』(대영성서공회)로 출간되었다. 다음은 빌립보서 2:10에 대한 『필립보인서』의 번역이다.

므릇 하늘에 잇는 자와 싸헤 잇는 자와 싸 아래 잇는 자  
—예수의 일흠을 듯고 무릅홀 굽히지 아니 흐느니 업고<sup>4)</sup>

『신약전서』는 이후 1904년과 1906년 두 차례에 걸쳐 개정되었으며 그 중 1906년판은 한국 최초의 공인성서가 되었다. 그 후 이 번역본은 수정을 거듭하였으며 1938년에는 신구약을 합본하여 『성경개역』(조선경성성서공회)으로 발행되었다. 『성경개역』은 1900년에 신약이 번역된 이래 1904년, 1906년, 1911년, 1939년, 1956년, 1957년, 1961년에 이르기까지 신약의 경우 여덟 번, 구약의 경우는 다섯 번이나 개정되었으며 1961년에 신구약을 통틀어 815곳을 마지막으로 고친 이후 지금까지 30여 년 동안 사용되고 있다.<sup>5)</sup> 비교적 최근에는 한글 맞춤법과 현실 언어의 변화, 그리고 성서학 관련 학문들의 발전과 그 성과물들을 반영하여 성경을 개정할 필요가 생기게 되었으며 대한성서공회에서는 “가능한 현재 개역성경의 특징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최소한으로, 꼭 필요한 부분만 개정한다는 원칙” 하에 개정 작업을 시작하였고 1998년 『개역개정』을 출간하였다.<sup>6)</sup> 다음은 빌립보서 2:10에 대한 1938년 『성경개역』과 1952년 『성경전서 개역한글판』(대한성서공회) 번역이다.

3) 이후 소개되는 한글성서번역의 역사에 대한 정보들은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리진호, 『한국성서 백년史 I』(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6)에서 자유롭게 인용하였다.

4) 이 부분에서 1900년에 발행된 『신약전서』는 『필립보인서』와 단순한 표기상의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본문 빌립보서 2:10에 있어서 『신약전서』는 “아니 흐느니”를 “아니 흐느이”로 표기한다.

5) Ibid., 155-156.

6) 개역개정판의 번역 원칙에 대해서는 <http://www.bskorea.or.kr/about/owntrans/major/feature02.aspx>을 참조하였다.

하날에 있는자들과 싸에 있는자들과 싸 아래 있는자들도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일흠에 쫄게 하시고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sup>7)</sup>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로스역은 빌립보서 2:10의 삼중적 형용사구문이 “모든 무릎꿇”을 수식하게 함으로써 이 구문이 가지고 있는 문법적 난해함—이 문제에 대해서는 차후 상세히 논의하게 될 것이다—을 우회하는 번역을 채택하였다. 반면에 로스역 이후 개신교 성경 번역은 한결같이 이 구문을 하늘과 땅 위 그리고 땅 아래 지적인 존재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번역하고 있다. 다시 말해 적어도 지난 100년 이상의 개신교 성경번역 역사에 있어서 빌립보서 2:10의 난해 구문은 별다른 석의상의 문제제기 없이 남성 복수 형용사 구문으로 해석되어 왔던 것이다.

## 2.2. 빌립보서의 배경

표면상 빌립보서는 학자들에 의해 오랫동안 “우정의 서신”으로 분류되어 왔다.<sup>8)</sup> 바울과 빌립보 교인들 사이의 우정은 바울이 애정 어린 목소리로 빌립보 교인들을 부를 때(1:4, 7-8; 4:1; 2:26 참고), 서로의 일에 대해 관심을 표현하는 곳(1:12; 2:19, 23, 26 등등)에서, 그리고 빌립보인들이 바울의 필요를 돌아보았던 일을 언급하는 곳(4:14-19) 등등에 잘 반영되어 있다. 바울과 빌립보인들 사이의 이러한 우정 어린 관계는 아마도 AD 49년 경 바울이 빌립보를 처음으로 방문했을 때 형성되었을 것이다(행 16:11-40; 빌 1:5 참고). 바울이 이 지역을 방문했을 당시에 빌립보는 로마의 마케도니아 지역에 있어서 매우 번성했었던 도시였다. 또한 빌립보는 정치적으로는 로마의 시민권을 보장 받았던 식민 도시였으며 종교적으로는 혼합주의가 두드러졌던 도시였는데 그 중에서 황제숭배는 고고학적인 증거에 의해 분명하게 확인되듯이 가장 지배적인 종교현상이었다.<sup>9)</sup> 사도행전

7) 빌립보서 2:10의 경우 1952년 『성경전서 개역한글판』의 번역과 표기는 1961년 『성경전서 개역한글판』과 1998년 『성경전서 개역개정판』에 고스란히 채택되었다.

8) Stanley K. Stowers, “Friends and Enemies in the Politics of Heaven: Reading Theology in Philippians”, Jouette M. Basslerin, ed., *Pauline Theology*, vol. 1 (Atlanta: Society of Biblical Literature, 2002), 107.

9) Peter T. O’Brien, *The Epistle to the Philippians: A Commentary on the Greek Text*, NIGTC (Grand Rapids: Eerdmans, 1991), 4-5. 이들 고고학적인 증거들은 신격화된 율리우스, 아우구스투스, 클라디우스의 제사장들을 언급하는 비문들과 아우구스투스에게 승리를 가져다 준 신적인 영을 위한 기념비 등을 포함한다(F. W. Bear, *A Commentary on the Epistle to the Philippians*, 2nd ed. [London: Adam & Charles Black, 1969], 7).

16:13에 따르면 빌립보에는 정기적인 회당의 모임이 없어 안식일에 바울은 기도 처를 찾아 성문 밖 강가로 나갔다가 그곳에 모인 몇몇 여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이러한 사실은 이 지역에 거주하는 유대인의 수는 많지 않았다는 것을 추정케 해준다.<sup>10)</sup>

### 2.3. 빌립보 교회의 문제: 외적인 핍박과 내적인 불일치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 바울은 서신을 통하여 빌립보인들이 직면하고 있었던 최소한 두 가지 이상의 중요한 문제들을 다루고 있으므로 빌립보서는 단순한 “우정의 서신” 그 이상의 서신이라고 보아야 한다. 빌립보인들이 직면하고 있었던 문제 중 하나는 이들이 복음으로 인해 외부로부터 심각한 위협과 핍박에 노출되어 있었다는 것이다. 빌립보인들이 겪고 있던 고난과 핍박의 내용과 본질은 정확히 알 수는 없다. 하지만 전후 문맥에서 특별히 1:27-30에서 바울이 사용하고 있는 어휘들—예를 들어 *στῆκῶ συναθλέω ἀντίκειμαι ἄγῶν* 등등<sup>11)</sup>—은 이들이 직면하고 있던 상황이 실바(M. Silva)가 가정하는 것보다 훨씬 심각한 수준이었다는 것을 강하게 시사해 준다.<sup>12)</sup> 아울러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불신자의 세상을 의미하는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에 의해 둘러싸인 것으로 묘사한다(빌 2:15). 그런데 보다 넓은 문맥 속에서 관찰해 볼 때 불신자의 세상은 기독교 신앙 공동체를 향하여 결코 중립적이지 않다. 이러한 점은 바울 자신이 지금 제국의 죄수로 투옥되어 있다는 사실을 통해 분명하게 암시되어 있다.<sup>13)</sup> 바울의 투옥 소식에 신자들—아마도 로마의 신자들—은 위축되지 않았고 오히려 더욱 두려움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방 세계에서 증거하는 계기가 되었다(1:14). 또한 빌립보서 1:13-14에서 바울이 사용하는 어휘와 표현들은 분명 자신의 투옥이 이들에게 두려움을 가져올 만큼 심각한 상황이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로마 신자들이 보여준 바울의 투옥에 대한 역설적인 반응은 바울의 배가된 기쁨의 이유이기도 한 것

10) O'Brien, *Philippians*, 5.

11) 이들 어휘들의 군사적인 뉘앙스와 의미에 대해서는 Ralph P. Martin, *Philippians*, NCB (London: Oliphants, 1976), 82-83와 김세윤, 『빌립보서 강해』 (서울: 두란노, 2004), 69-70을 참조하라.

12) 실바(Silva)는 빌립보서 1장에 암시되어 있는 대적자들이 빌립보서 3장에서 바울이 염두에 두고 있던 대적자 곧 유대주의자들과 같은 무리에 속한 사람들이었다고 가정한다(M. Silva, *Philippians*, 2nd ed., BECNT [Grand Rapids: Baker, 2005], 82-83). 실바에 대한 반론으로는 Peter Oakes, *Philippians: From People to Letter*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1), 81-82를 참조하라.

13) *πραϊτώριον*에 대한 상세한 논의는 J. B. Lightfoot, *Philippians* (Wheaton: Crossway Books, 1994), 113-116에 소개되어 있다.

이다(1:18). 따라서 바울은 자신은 물론 다른 신자들과 유사한 핍박의 상황에 처해 있던 빌립보 교인들을 독려할 목적으로 빌립보서를 작성했다고 할 수 있겠다.

둘째로 빌립보 교인들이 직면하고 있었던 또 하나의 문제는 교회 내부의 일치와 연합에 관계된 것이다. 바울은 이 문제에 대한 관심을 서신 전체에 걸쳐 다양하게 표현하는데 이러한 표현들의 예로는 “투기(φθόνος)와 분쟁(ἔρις)”(1:15), “다툼(ἔριθεία)”(1:17), “다툼(ἔριθεία)과 허영(κενοδοξίαν)”(2:3), “원망(γογγυσμός)과 시비(διαλογισμός)”(2:14), “자기 일을 구하고(τὰ ἑαυτῶν ζητοῦσιν)”(2:21) 등을 들 수 있다.<sup>14)</sup> 고린도전서와 비교해 볼 때 이 어휘들은 빌립보 교회가 고린도교회와 같이 분쟁이나 분열이라는 위급한 상황에까지는 아직 도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고전 1:10-12 참고).<sup>15)</sup>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보 교회 내의 불일치라는 작은 불신의 씨앗이 가진 잠재적 위험성은 바울로 하여금 빌립보서를 기록하게 했던 또 다른 이유가 되었을 것이다.

#### 2.4. 두 주제 사이의 관계

한편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직면하고 있던 두 가지 문제 상황을 따로 분리하여 생각하지 않는다. 오히려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려는 빌립보인들에게 있어 외적인 핍박과 내적인 불일치의 문제는 동전의 양면과도 같이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빌립보서 1:27-2:18은 소위 “권고의 단락”을 형성하는데 이 단락을 시작하는 첫 구절에서부터 이미 두 개의 주제는 서로 긴밀하게 얽혀 있다. 바울은 1:27에서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라”고 권고하고 있는데 여기서 외부적인 핍박과 박해를 전제로 해서 이해되어야 하는 “일심으로 서서”라는 군사적 표현과 교회 공동체의 일치를 촉구하는 “한 뜻으로 협력하라”는 표현은 서로 긴밀한 관계 속에서 전체 권고 단락의 서두를 장식하고 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강인함과 하나됨에 대한 강조는 복음에 합당한 삶에 대한 바울

14) 아울러 서신을 통하여 바울은 누차 교회의 하나됨을 강조한다. 이것은 빌립보 교회가 직면하고 있었던 내적인 갈등을 간접적으로 추론해 볼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한다(1:27; 2:2; 4:2). 빌립보 교회의 내적인 분열에 대한 주제는 Davorin Peterlin, *Paul's Letter to the Philippians in the Light of Disunity in the Church*, NovTSup 79 (Leiden: E. J. Brill, 1995), 19-131에 보다 자세히 논의되어 있다.

15) Gordon Fee, *Paul's Letter to the Philippians*, NICNT (Grand Rapids: Eerdmans, 1995), 33, 187. 흥미롭게도 바울은 헬라어 단어 ἔρις를 고린도 교회의 분열을 가리키기 위해서 사용한다(고전 1:11; 빌 1:15). 그러나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은 이 단어를 교회 내부에 존재하는 의견 상의 분열을 뜻하는 σχίσμα와 함께 사용한다(고전 1:10). 그들의 다툼은 이미 가시적인 형태를 가졌기 때문에 글로에의 집 사람들에게 의해 바울에게 보고된다. 그러나 빌립보서의 경우 바울은 ἔρις를 잘못된 동기로 복음을 전하였던 신자들의 그릇된 동기를 지적하기 위해 사용한다.

의 권고에 있어 상호보완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동시에 외적 핍박과 내적 불일치의 문제가 바울에 의해 함께 다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sup>16)</sup>

한편 1:27에서 소개하고 있는 단일 주제는 뒤이어 나오는 두 개의 소단락(1:27-30; 2:1-4)에서 각기 서로 다른 강조점을 가지고 전개된다. 이들 두 개의 소단락은 2:1에서 인과(因果)의 접속사 οὖν을 매개로 하여 자연스럽게 논리적으로 연결된다.<sup>17)</sup> 마틴(R. P. Martin)이 올바르게 지적했듯이 이것은 외적인 핍박이라는 주제로부터 동일하게 위협적이었던 분열된 교회의 문제로 그 내용이 전환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며 이들 두 가지 주제가 빌립보서의 배경에 긴밀한 관련 속에서 다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예가 된다.<sup>18)</sup> 더 나아가 빌립보서 2:1-4은 하나의 조건절로서 이 문장은 “이미 기정 사실로 가정된 실재”를 강조하고 있다.<sup>19)</sup> 따라서 2:1에 소개된 그리스도 안에서 경험된 권면, 사랑, 위로, 성령의 교제, 긍휼, 자비 등은 이미 이전 단락을 통해 소개되었듯이 이방 사회의 적대감에 직면하고 살아가야 했던 바울과 빌립보 교회 모두에 의해 이미 경험된 바 있는 실재였다(빌 1:30). 그러므로 일치와 연합에 대한 바울의 호소는 그리스도를 위해 혹은 복음의 진보를 위해 고통을 당했고 그로 인하여 신적인 위로와 사랑을 경험했던 빌립보 공동체에 주어진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핍박과 불일치라는 주제의 상관관계에 대한 또 하나의 좋은 예는 1:14-18에 소개된다. 표면적으로 이곳에 소개된 신앙 공동체는 바울의 투옥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확신하게 되어 두려움 없이 복음을 선포하는데 더욱더 용기를 내고 있는 모습으로 묘사된다. 그러나 이면에 있어서 신자들은 서로 다른 동기로 그리스도를 선포했다. 곧 어떤 이들은 바울과의 관계에 있어서 “투기”(φθόνος), “분쟁”(ἔρις), 혹은 “다툼”(ἔριθειά)이 동기가 되어 그리스도를 증거하였고 또 다른 이들은 바울을 향해 좋은 뜻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다(1:16-17). 이러한 불일치의 상황을 고려할 때 비록 바울은 1:18에서 어떤 동기에서라도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자신은 기뻐한다고 말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의 기쁨은 완전하지는 않았던 것

16) 바울의 표현 ἀξίως τοῦ εὐαγγελίου τοῦ Χριστοῦ πολιτεύεσθε는 상징적으로 복음을 통해 취득하게 된 시민권을 가진 ‘시민’으로 복음의 진보에 참여하는 삶을 살라는 권면을 담고 있다(빌 1:5-6). 바울은 특별히 이 표현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있지는 않다. 대신 자신들의 문화적 혹은 정치적 환경 속에서 무엇을 의미하는 지를 제국의 시민이었던 빌립보 독자들이 잘 알고 있다는 것을 바울이 가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가정은 바울이 평소 즐겨 쓰던 동사 περιπατέω 대신에 왜 πολιτεύομαι를 사용하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준다(갈 5:16; 고후 5:7; 골 1:10; 살전 2:12 등). G. F. Hawthorne, *Philippians*, WBC, rev. ed., vol. 43 [Colombia: Thomas Nelson, 2004], 69.

17) L. Gregory Bloomquist, *The Function of Suffering in Philippians*, JSNTSup 78 (Sheffield: JSOT, 1993), 160-161.

18) Martin, *Philippinas*, 85-86.

19) BDF, 188.

으로 보인다. 이렇게 볼 때 같은 상황에 있던 빌립보 교인들에게 서로 마음을 같이 함으로써 자신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고 했던 바울의 권고는 충분히 납득할 만하다. 이러한 이유로 빌립보서 2:3-4에서 바울은 소극적으로는 아무 일에도 짓다툼(ἐπιθεία)이나 허영(κενοδοξία)으로 하지 말라고 말하며 보다 적극적으로는 같은 마음을 품고 겸손함(ταπεινοφροσύνη)으로 서로를 대하라고 권면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빌립보서 2:1-4에서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어떤 선한 일을 해야 한다는 식의 일반적인 윤리적 권고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바울은 복음의 진보를 위하여 분투하는 동안 서로를 향해 가져야 하는 빌립보 신앙 공동체의 내적인 태도나 동기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빌립보서는 특별한 상황에 있던 빌립보 교회에 보내진 서신서이다. 그들은 바울의 복음 사역을 통하여 하늘의 시민권을 얻게 되었고 그 때 이후로 그들은 복음의 진보를 위한 바울의 동역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왔다(빌 1:5). 그러나 빌립보인들은 현재 이방 세계로부터의 위협에 직면해 있으며 그 안에서 신실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했다(1:27). 아마도 이들 중의 일부는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복음 사명을 수행하다가 투옥된 자들도 있었을 것이다(1:30). 외적인 핍박과 아울러 이들은 내부적으로는 장차 재앙을 불러올 지도 모르는 분열의 싹을 가지고 있었다.<sup>20)</sup> 이미 이상에서 논의하였던 것처럼 이들 두 주제는 서신서 전체를 통하여 특별히 처음으로 등장하는 권고의 단락(1:27-2:18)에서 서로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다. 그러므로 전체 권고 단락의 핵심부에 놓여 있는 빌립보서 2:6-11이 이들 주제 모두와 관련되어 있다고 가정하는 것은 지극히 타당해 보인다.

이러한 관찰이 중요한 이유는 많은 주석가들이 빌립보서 2:6-11을 단순히 그리스도의 겸손이라는 윤리적 범주 내에서 다루고 있기 때문이며 단지 교회 내의 불일치에 대한 바울의 처방으로만 이해하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미 주장한대로 바울에게 있어 외적인 핍박과 교회의 내적인 불일치는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것이다. 따라서 빌립보서 2:6-11이 교회의 내적인 문제에 대한 사도의 처방이라면 이 처방은 동시에 빌립보인들이 직면하고 있던 외적인 박해의 상황에 대한 처방이기도 해야 한다. 따라서 빌립보서 2:6-11을 단순히 모본으로서의 그리스도의 겸손이라는 범주 내에서 다루는 것은 무엇인가 불충분하다.

## 2.5. 빌립보서 2:10에 대한 대안적 해석

20) 김세운 교수는 빌립보서 1:27-28을 주해하면서 “바울은 외부로부터 핍박을 받고 있는 빌립보 교회에 내분이 있는 것을 안타까워하면서 그들이 복음에 합당하게 상호 관계하고 공동체적 삶을 꾸려”가라고 권고하고 있다고 말함으로써 빌립보 교회가 직면하고 있던 이중적인 문제의 본질을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다(김세운, 『빌립보서 강해』, 70).

로마이어(E. Lohmeyer)가 빌립보서 2:6-11이 세 개의 행(行)으로 구성된 하나의 찬송시라고 제안한 이래 학자들은 본문에 대한 다양한 구조 분석을 내놓았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모두의 동의를 얻을 만한 제안은 제시되지 않고 있으며 본문의 구조에 대한 논의는 현재까지도 계속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문이 두 부분—곧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의 행동(6-7절)과 하나님의 높이심의 행동(8-11절)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학자적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sup>21)</sup> 이러한 구분은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각각 첫 번째 부분과 두 번째 부분의 문법적 주어라는 사실에 의해서도 쉽게 확인될 수 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건을 두 개의 축—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가진 사건으로 묘사한다. 이러한 빌립보서 2:6-11의 대략적인 구조는 낮추심(humiliation)과 높이심(exaltation)이라는 구약의 전형적인 구조를 떠올리게 한다.<sup>22)</sup> 만일 이러한 가정이 타당한 것이라면 다음 두 가지 추론이 가능하다. 첫째로 그리스도의 겸손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본문이 속한 문맥에서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의 행동은 2:8에 사용된 γενόμενος ὑπὸ κρούσεως μέχρι θανάτου이라는 분사구(分詞句)에 의해 부연설명을 받게 된다. 그리스도께서 누구에게 복종했는지 그 대상이 명시적으로 표현되어 있지는 않지만 문맥상 이 복종은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것임이 분명하다.<sup>23)</sup> 케제만(E. Käsemann)은 그리스도의 순종의 객관성을 지나치게 강조함으로써 본문에서 그리스도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에 대한 요소를 전적으로 배제하였는데 이러한 이해는 문맥으로부터 보장을 받을 수 없다.<sup>24)</sup> 빌립보서 2:6-11의 처음부터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건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기술한다(2:6). 또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높이신 것은 그리스도의 순종에 대한 직접적인 반응으로 이해되는데 이것 역시 그리스도의 순종이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진 것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루어졌다는 것을 문맥 속에서 암시하고 있는 것이다.<sup>25)</sup> 결국 갈라디아서 1:4에서—이곳에서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은 하나님

21) 이러한 개략적인 구조에 동의하는 학자들로는 Jean-François Collange, P. O'Brien, G. Fee, M. Silva, R. Melick, T. Schreiner, B. Witherington III, M. Hooker 등이 있다.

22) 삼상 2:7-8; 대하 33:12, 23; 유딧서 9:11; 시 51:17(LXX); 81:3(LXX); 113:7-8; 잠 3:34; 습 2:3; 사 2:11; 눅 1:46-55; 뱀전 5:5-6; 약 4:10 등.

23) 호손(Hawthorne)은 본문에서 소개되는 그리스도의 복종이 인간의 바램과 관련이 있다고 해석하려는 경향이 있다. 비록 일부 신약 성경 본문이 이러한 생각을 지지하는 것이 사실이다(눅 19:10; 막 10:45). 하지만 다른 본문에 의해 이 주장이 뒷받침 된다는 것이 곧 빌립보서 본문도 이 생각을 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할 필요는 없다. 차라리 만약 바울이 의도적으로 ὑπὲρ ἑμῶν와 같이 그에게 있어 매우 전형적인 구속의 언어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이것은 아마도 바울이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 사이의 관계에 보다 많은 강조점을 두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24) Ernst Käsemann, “A Critical Analysis of Philipians 2:5-11”, R. W. Funkin, ed., *God and Christ: Existence and Province* (New York: Harper and Row, 1968), 71.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으로 묘사된다—와 마찬가지로 빌립보서 2:6-8에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구속 계획에 있어 자신의 역할을 자발적으로 수행하신 분으로 묘사된다(롬 15:8; 엡 5:2; 빌 2:13-14 참고).<sup>26)</sup>

이렇게 낮아짐과 높이심이라는 패턴으로 묘사되는 그리스도의 사건은 빌립보서 문맥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강조하는 매우 효과적인 방법으로서 작용한다. 이미 언급했던 것처럼 빌립보서 2:6-11의 두 번째 부분의 문법적인 주어는 하나님 아버지이다. 다시 말해 9절부터 하나님은 무대의 전면에 등장한다. 마틴은 이 장면을 다음과 같이 생생하게 묘사한다.

이 기독교론적인 시의 구조와 설정 안에서 우리는…하나님의 하늘 어전 속으로 들리어 올라간다. 그의 음성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수여하는 장면에서 듣게 된다…마지막 모든 만물이 회복되는 비전(신약의 묵시)에서와 마찬가지로 그의 주권적 통치는 완전하며 어떠한 반대의 목소리도 들리지 않는다.<sup>27)</sup>

현재 본문인 빌립보서 2:9-11에서 새로운 이름의 수여는 하늘 어전에서 이루어지는 예수님의 대관식의 일부이다.<sup>28)</sup> 이와 유사하게 하나님께서 승귀하신 그리스도께 지고한 이름을 수여하시는 장면은 다른 신약 본문들 예를 들면 에베소서 1:21과 히브리서 1:4에 각각 그 강조점을 달리하여 등장한다. 히브리서 1장에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 수여하시는 지고한 이름은 문맥상 다름 아닌 “하나님의 아들”이다(히 1:5). 히브리서의 저자는 이 표현을 그리스도께서 모든 천사들보다 우월하시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 사용한다. 한편 에베소서에서 바울은 승귀하신 그리스도에 대한 묘사를 자신의 논증 안으로 들여와 에베소 신자들의 하나님에 대한 지식—특별히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강력하신지를 아는 지식—이 더욱 깊어질 수 있기를 위해 기도한다(엡 1:19). 바울에게 있어 이 능력은 하나님께서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일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셔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신 사건 속에서 그 절정에 달하게 된다(엡 1:20-21). 이곳에 소개된 것과 동일한 하나님의 능력이 바울의 복음 사역 속에 나타났으며 또한 아직까지 에베소 교회 안에서 역사하고 있다(엡 3:7, 20).<sup>29)</sup> 이

25) 이러한 맥락에서 행겔도 κύριος라는 칭호는 주로 예수님과 아버지 사이의 매우 친밀한 관계를 강조하는 “하나님의 아들” 칭호와 관련이 있다고 주장한다(Martin Hengel, *Studies in Early Christology* [Edinburgh: T. & T. Clark, 1995], 381-382).

26) R. N. Longenecker, *Galatians*, WBC, vol. 41 (Nashville: Thomas Nelson, 1990), 9.

27) R. P. Martin, *A Hymn of Christ: Philippians 2:5-11 in Recent Interpretation & in the Setting of Early Christian Worship* (Downers Grove, IL: InterVarsity, 1997), 269.

28) Käsemann, “A Critical Analysis of Philippians 2:5-11”, 76.

처럼 에베소서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하나님의 사역은 “신자들의 자기 존재에 대한 이해에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이해된다(엡 2:5-6).<sup>30)</sup>

이미 언급한 에베소서의 경우와 유사하게 그러나 이와는 조금 다른 강조점을 가지고 바울은 그리스도의 대관식이라는 종말론적인 장면을 빌립보서 문맥 안으로 들여온다. 아마도 바울의 강조점은 빌립보서 2:10-11에서 이사야 45:23을 그가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유추될 수 있을 것이다. 원래 이사야 45:23이 속한 문맥에서 하나님은 반복해서 주권의 관점에서 절대적으로 유일하신 분으로 선언된다. 그는 온 세상의 창조주이시며 인간 역사의 주권자이시며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세상의 구원자와 심판자이시다(사 45:5, 6, 14, 18, 21, 22; 46:5, 9 등). 로마서 14:11의 경우 바울은 최후의 심판자로서의 하나님에 대한 강조점을 가지고 이사야 45:23을 인용한다. 바울이 로마서 14:11에서 이사야 본문을 사용하는 목적은 문맥을 통해 즉시 분명해 진다. 이사야 45:23을 통해 바울은 신자 각자가 최후 심판의 보좌 앞에 서게 될 것이며 하나님께 자신의 행실에 대하여 자백하게 될 것임을 로마인의 신자들에게 상기시키고 있다. 오직 하나님만이 신자 각각에 대해 판결을 내릴 권한을 가지고 계시며 따라서 동료 신자를 판단하는 사람은 자신을 하나님의 위치에 두는 것과 다름이 없는 것이다. 따라서 바울이 최후의 심판자로서의 하나님을 로마인들에게 상기시키는 것은 서로를 향한 로마 신자들의 행동의 기초로서 작용하는 것이다(롬 14:10, 13). 그러나 빌립보서의 경우 이사야 본문의 사용은 다른 효과를 갖는다. 여기서 바울은 이사야 45:23의 기본적인 언어 구조는 보존하고 있다.<sup>31)</sup> 그러나 바울은 이사야 고백의 스케일을 확장시키고 또한 만물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게 함으로써 이사야 고백의 내용을 보다 분명하게 명시한다.

특별히 바울은 이사야 45:23의 언어에 *ἐπουρανίων καὶ ἐπιγείων καὶ καταχθονίων*라는 삼중구조를 갖는 독특한 형용사 구문을 결합한다. 이 표현의 정확한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학자들 사이에 의견이 분분하다.<sup>32)</sup> 문법적으로 볼 때 바울의 삼중적 형용사구문은 남성 혹은 중성으로 취급될 수 있기 때문에 그 해석이 다소 애매모호한 것이 사실이다. 비록 이곳에 사용된 형용사

29) A. T. Lincoln, *Ephesians*, WBC, vol. 42 (Dallas: Word Books, 1990), 61.

30) Ibid.

31) 바울: “...πᾶν γόνυ κάμψη···καὶ πᾶσα γλῶσσα ἐξομολόγησεται···”; 이사야 45:23(LXX): “... κάμψει πᾶν γόνυ καὶ ἐξομολόγησεται πᾶσα γλῶσσα···”

32) 이 삼중적 표현에 대해서는 최소한 다음 세 가지 주요 해석이 존재한다. 첫째로 이 표현이 가리키는 것은 천상의 예배에 참여하는 자연과 사람들로 구성된 전체 우주를 가리킨다는 해석과, 둘째로 하늘의 천사들, 땅의 사람들, 그리고 스올의 죽은 자들 혹은 지하 세계의 귀신들을 지칭한다는 해석 그리고 마지막으로 천상의 권세들이나 우주를 통치하는 영들을 뜻한다는 해석이다. 보다 자세한 논의를 위해서는 Martin, *A Hymn of Christ*, 257-265를 참조하라.

구문을 남성이라고 주장하는 견해가 학자들 사이에 상당한 지지를 받고 있기는 하지만 이 구문을 중성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 역시 간과될 수 없는 중요한 근거들을 가지고 있다. 우선 바울의 삼중적 표현은 뒤따라 나오는 고백의 우주적 보편성을 강조하는 문맥 안에서 발견된다.<sup>33)</sup>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빌립보서 2:10-11의 장면은 전체 창조세계—그것이 생명이 있는 것이든 그렇지 않은 관계없이—가 천상의 예배에 참여하는 것을 묘사하고 있다고 주장한 라이트풋(J. B. Lightfoot)의 견해는 여전히 유효한 것으로 보인다.<sup>34)</sup> 그러므로 “이 표현에는 우주적 예배의 보편성을 훼손하는 어떠한 제한도 요구되지 않는다.”<sup>35)</sup> 또한 이 종말론적 예배의 우주적 보편성을 보다 잘 표현할 수 있는 해석이 문맥에 보다 잘 어울린다고 말할 수 있다.

둘째로—학자들에 의해 매우 자주 언급되는—빌립보서 2:6-11과 3:20-21 사이의 언어적 관련성의 관점에서 볼 때 해당 형용사 구문은 중성으로 이해되어야 한다.<sup>36)</sup> 가정된 언어적 상관성이란 다음과 같은 어휘들을 통해 확인된다: μορφή(2:6)와 σύμμορφον(3:21); ὑπάρχων(2:6)과 ὑπάρχει(3:20); σχήματι(2:7)와 μετασχηματίσει(3:21); κύριος Ἰησοῦς Χριστός(2:11)와 κύριον Ἰησοῦν Χριστόν(3:20); δόξα(2:11; 3:21).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바울의 삼중적인 형용사 구문 곧 πᾶν γόνυ κάμψῃ κτλ(2:10-11)와 상응하는 구문은 빌립보서 3:21의 구문 τοῦ δύνασθαι αὐτὸν καὶ ὑποτάξαι αὐτῷ τὰ πάντα이다.<sup>37)</sup> 만약 두 본문 사이의 언어적 상관성이 바울에 의해 의도적으로 고안된 것이라면 빌립보서 2:10의 삼중구조를 갖는 형용사 구문은 모든 창조세계를 포괄하는 τὰ πάντα—이는 문법적으로 중성이다—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되는 것이 마땅하다. 빌립보서 2:6-11과 3:20-21 사이의 언어적 유사성에 대해 언급하는 학자들조차도 이러한 사실에 기초해서 바울의 삼중적 형용사 구문을 해석해 보려하지 않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

33) Hermann Sasse, “καταχθόνιος”, *TDNT*, vol. 3 (Rand Rapids: Eerdmans, 1993), 634.

34) Lightfoot, *Philippians*, 115. 이 지점에서 마틴은 라이트풋의 해석을 잘못 이해한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바울의 삼중구조를 갖는 표현이 오직 자연과 사람에만 한정되는 것으로 라이트풋이 이해한 것으로 마틴이 잘못 가정하고 있기 때문이다(Martin, *A Hymn of Christ*, 257). 그러나 라이트풋의 강조점은 모든 창조물—그것이 무엇이든 간에—을 포함하는 예배의 우주성에 놓여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라이트풋은 단지 바울의 표현이 지적인 존재만을 가리킨다는 식의 해석을 단호히 거부한다.

35) *Ibid.*

36) M. D. Hooker, “Philippians 2:6-11”, E. Earle Ellis and E. Gräber, eds., *Jesus und Paulus: Festschrift für Werner Georg Kümmel zum 70. Geburtstag*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975), 155; Oakes, *Philippians*, 147; Thomas R. Schreiner, *Paul, Apostle of God's Glory in Christ: A Pauline Theology* (Downers Grove, IL, InterVarsity, 2001), 170.

37) Seyoon Kim, *The Origin of Paul's Gospel* (Tübingen: J. C. B. Mohr, 1981), 151; Fee, *Philippians*, 377; Hooker, “Philippians 2:6-11”, 155.

닐 수 없다.

셋째로 만물이 하나님께 복종한다는 주제는 구약에 깊이 젖어 있었던 신약성경의 저자들에게, 특별히 바울에게 익숙한 주제이다. 예를 들어 고린도전서 15:27-28과 에베소서 1:22에서 바울은 시편 8:6에 기초하여 이 주제를 사용한다. 본래 시편 8:6(8:7[LXX])의 문맥에서 “만물(πάντα)”은 인간보다 하위에 있는 모든 피조물을 가리킨다. 그리하여 사람은 위계에 있어 하나님(MT) 혹은 천사들(LXX)보다 하위에 있지만 모든 다른 피조물들 특별히 살아있는 생물들보다는 상위에 위치한다(시 8:6-9). 아마도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높이 들리시어 하나님 우편에 좌정하시는 모습 속에서 시편 8:6의 궁극적인 성취를 보았을 것이며 승귀하신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것으로 묘사되는 πάντα란 하나님의 주권 아래 놓인 모든 피조 세계에 다름 아니다(롬 8:20; 11:36; 엡 1:10; 골 1:15-20; 히 2:8; 뱀전 3:22; 마 28:18 참고).<sup>38)</sup>

마지막으로 빌립보서에 등장하는 우주를 삼중 구조로 묘사하는 것은 구약에서 하나님의 창조세계와 그 총체성에 대한 구약의 관점을 잘 반영해 주고 있다. 구약은 헬라이어 κόσμος에 상응하는 개념이나 어휘가 존재하지 않는다.<sup>39)</sup> 대신 구약에서 우주는 언제나 창조주로서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영역들의 총합이나 체계로 묘사된다.<sup>40)</sup> 이러한 맥락에서 창조된 세계는 가장 빈번하게 하늘과 땅의 관점에서 묘사된다.<sup>41)</sup> 아울러 바다나 혹은 지하세계 등 제삼의 요소가 종종 이들과 하늘과 땅에 덧붙여진다(출 20:4, 11; 신 4:16-19; 5:8; 느 9:6; 시 96:11; 146:6; 단 2:38[OG]; 4:37[OG]).<sup>42)</sup> 우주에 대한 이러한 이해는 이곳 빌립보서를 비롯해 다른 신약 저술들에서 얼마든지 쉽게 찾아 볼 수 있다.<sup>43)</sup> 세 부분으로 구성된 우주에 대한 빌립보서의 묘사와 가장 유사한 묘사가 나타난 곳은 아마도 “땅 아래”를 세상을 구성하는 요소 가운데 하나로 포함하고 있는 요한계시록 5:13일 것이다. 이 본문에서 강조점은 상세한 우주론의 전개에 있다기보다는 빌립보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전체 창조세계를 포괄적으로 묘사하는 데 있다. 다시 말해 요한계시록 5:13은 피조물도 마지막 날 위대한 찬양과 경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있어

38) C. K. Barrett, *A Commentary on the First Epistle to the Corinthians*, Harper's New Testament Commentaries (New York: Harper & Row, 1968), 359.

39) Hermann Sasse, “κοσμέω κτλ”, *TDNT*, vol. 3 (Grand Rapids: Eerdmans, 1993), 880-895.

40) J. Guhr, “κόσμος”, Colin Brown, ed., *The New International Dictionary of New Testament Theology*, vol. 1 (Grand Rapids: Zondervan, 1986), 522.

41) 창 14:19, 22; 출 31:17; 왕하 19:15; 대하 2:17; 예 5:11; 시 89:11; 115:15; 121:2; 124:8; 134:3; 사 37:16; 45:12, 18 등등.

42) H. Sasse, “γῆ, ἐπίγειος”, *TDNT*, vol. 1 (Grand Rapids: Eerdmans, 1993), 1:678.

43) Sasse, “κοσμέω κτλ”, 884. 예를 들어 마 28:18; 엡 1:10; 골 1:16, 20; 계 5:13; 10:6; 14:7 등등. 이러한 점에서 모든 피조물의 총체로서의 “세상”은(τὰ πάντα와 동의어이며 동시에 상호교환 가능한 어휘이다(요 1:3; 고전 8:6; 엡 1:10; 빌 3:21; 골 1:16-17; 히 2:8; 뱀전 4:7).

예외가 되는 피조물이 존재하지 않을 것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sup>44)</sup> 비일(G. K. Beale)이 언급했던 것처럼 계시록에 나타난 다중 구조의 세상에 대한 표현은 정확하게 구약의 영향력을 반영하고 있다는 점은 틀림없다.<sup>45)</sup> 아마도 요한계시록 5:13의 다섯 부분으로 구성된 우주는 하나님을 여러 부분으로 구성된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로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묘사하는 여러 구약 본문들을 집합적으로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출 20:11; 시 146:6; 느 9:6; 단 2:38[LXX]; 4:37[LXX]).<sup>46)</sup> 만약 바울의 삼중적 형용사 구문이 요한계시록 5:13의 표현처럼 우주에 대한 구약의 이해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이 표현을 통해 바울은 하나님의 창조의 포괄성을 강조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바울은 삼중적 형용사 구문을 빌립보서 2:10에 포함시킴으로써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의 총체성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빌립보서 2:10-11에서 바울이 마음에 상상하고 있는 것은 모든 창조물이 예수 그리스도가 주이심을 고백하는 것에 동참하고 있는 모습이다.

### 3. 결론

이상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빌립보서 2:6-11은 단순히 “그리스도의 겸손”이라는 주제에 국한되어 해석될 수는 없다. 물론 이러한 해석이 배제될 필요는 없겠으나 빌립보서의 첫 번째 권고 단락(1:27-2:18) 전체의 문맥에서 볼 때 이러한 해석은 다소 미흡한 점이 있다고 하겠다. 오히려 빌립보서 2:6-11에서 무엇보다 강조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Lordship)이다.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음을 선택할 만큼 낮아지신 그리스도를 높이셔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심으로써 그리스도께서 낮아지신 깊이와 들리우신 높이만큼이나 위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온 우주에 나타내 보이셨다(2:9). 그리고 이제 이 주권은 하나님의 원대한 구원의 계획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대행하시게 된 것이며 온 우주에 존재하는 피조세계는 단 하나의 예외도 없이 종말에는 이를 인정하고 또한 고백하게 될 것이다(2:10-11). 따라서 빌립보서 2:6-11이 빌립보인들에게 겸손을 촉구하기 위한 목적을 갖는 것이라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을 모방함으로써가 아니라 사람을 낮추시기도 하고 또한 높이시기도 하는 하나님의 절대주권 앞에서 겸손하게

44) Robert H. Mounce, *The Book of Revelation*, rev. ed., NICNT (Grand Rapids: Eerdmans, 1977), 138.

45) G. K. Beale, *The Book of Revelation*, NIGTC (Grand Rapids: Eerdmans, 1999), 366.

46) Ibid.

살아감으로써 성취될 수 있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sup>47)</sup> 더 나아가 그리스도의 주권에 대한 강조는 외부적인 핍박—아마도 이러한 핍박은 어느 정도 종교적인 것으로 로마의 황제숭배와 관련이 있었던 추측해 볼 수 있다—을 직면하고 있는 빌립보인들에게 바울이 주었던 권면에 신학적인 근거를 제공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바울은 빌립보인들로 하여금 그들이 처한 역설적인 상황 속에서도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구원의 계획을 완성하실 분은 여전히 그리고 언제나 그리스도이심을 상기시키고 있는 것이다.

빌립보서 2:6-11이 하나님의 절대주권에 대해 강조하고 있다면 빌립보서 2:10의 난해 구절 역시 이러한 문맥의 강조점을 잘 살릴 수 있는 방식으로 해석되고 번역되어야 한다. 우리말의 경우 영어식 표현과는 달리 바울의 형용사 구문에 대한 성(性)을 모호한 상태로 남겨둘 수는 없다.<sup>48)</sup> 따라서 『개역』 등에서의 마찬가지로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 위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번역하든지 혹은 『공동번역』 등에서 채택하고 있듯이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 위에 있는 것들과 땅 아래 있는 것들”로 번역해야 한다. 물론 해당 구문을 남성으로 취한다고 하더라도 바울이 의도한 것이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설령 그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본문을 통해 바울이 전달하고자 했던 것을 보다 더 정확하게 표현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책임있는 번역자의 자세가 아닐까 한다. 아울러 이미 주장했던 것처럼 본문에서 바울이 그리스도에 대한 예배에 있어 피조세계의 포괄성과 전체성을 극도로 강조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 그래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그리스도의 통치 영역 밖에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바울이 강조하고 있다면 다소간 제한된 뉘앙스를 주는 남성적 번역 보다는 포괄적인 중성적 번역이 본문에 대한 보다 적합한 번역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투고 일자: 2010. 5. 27, 심사 일자: 2010. 9. 13, 게재 확정 일자: 2010. 9. 14)

<주요어>(Keywords)

빌립보서 2:10, 주권, 우주, 하늘, 땅.

Philippians 2:10, Lordship, Universe, Heaven, Earth.

47) 빌립보서 2:6-11을 하나님의 주권의 관점에서 이해하는 것은 이후 빌립보서 2:12-13에서 하나님의 입재에 대한 인간의 반응으로서의 “두려움과 떨림”에 대한 언급과 또한 빌립보인들 안에서 자신의 기쁘신 뜻을 주권적으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에 대한 묘사와 문맥상 매우 잘 어울린다.

48) 영어 번역본 중 NIV, RSV, ESV 등은 본문의 문법적 모호성을 그대로 유지한다.

<참고문헌>(References)

- 『예수성교전서』, J. 로스 역, 경성: 문광서원, 1887.
- 『필립보인서』, H. G. 언더우드, 경성: 상임성서실행위원회, 1898.
- 『신약전서』, 경성: 대영성서공회, 1900.
- 『성경개역』, 경성: 조선경성성서공회, 1938.
- 『성경전서 개역한글판』, 서울: 대한성서공회, 1952.
- 『성경전서 개역한글판』, 서울: 대한성서공회, 1961.
- 『성경전서 개역개정판』, 서울: 대한성서공회, 1998.
- 김세윤, 『빌립보서 강해』, 서울: 두란노, 2004.
- 리진호, 『한국성서백년史 I』,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6.
- 한영제 편, 『한국성서찬송가 100년』, 서울: 기독교문사, 1987.
- Barrett, C. K., *A Commentary on the First Epistle to the Corinthians*, Harper's New Testament Commentaries, New York: Harper & Row, 1968.
- Beale, G. K., *The Book of Revelation*, NIGTC, Grand Rapids: Eerdmans, 1999.
- Bear, F. W., *A Commentary on the Epistle to the Philippians*, 2nd ed., London: Adam & Charles Black, 1969.
- Blass, F., Debrunner, A., and Funk, R. W., *A Greek Grammar of the New Testament and Other Early Christian Literature*,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61.
- Bloomquist, L. Gregory, *The Function of Suffering in Philippians*, JSNTSup 78, Sheffield: JSOT, 1993.
- Fee, Gordon, *Paul's Letter to the Philippians*, NICNT, Grand Rapids: Eerdmans, 1995.
- Guhrt, J., “κόσμος”, Colin Brown, ed., *The New International Dictionary of New Testament Theology*, vol. 1, Grand Rapids: Zondervan, 1986, 521-526.
- Hawthorne, G. F., *Philippians*, WBC, vol. 43, Colombia: Thomas Nelson, 2004.
- Hengel, Martin, *Studies in Early Christology*, Edinburgh: T. & T. Clark, 1995.
- Hooker, M. D., “Philippians 2:6-11”, E. Earle Ellis and E. Gräßer, eds., *Jesus und Paulus: Festschrift für Werner Georg Kümmel zum 70. Geburtstag*,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975, 151-164.
- Käsemann, Ernst, “A Critical Analysis of Philippians 2:5-11”, R. W. Funk, ed., *God and Christ: Existence and Province*, New York: Harper and Row, 1968, 45-88.
- Kim, Seyoon, *The Origin of Paul's Gospel*, Tübingen: J. C. B. Mohr, 1981.

- Lightfoot, J. B., *Philippians*, Wheaton: Crossway Books, 1994.
- Lincoln, A. T., *Ephesians*, WBC, vol. 42, Dallas: Word Books, 1990.
- Longenecker, R. N., *Galatians*, WBC, vol. 41, Nashville: Thomas Nelson, 1990.
- Martin, R. P., *A Hymn of Christ: Philippians 2:5-11 in Recent Interpretation & in the Setting of Early Christian Worship*, Downers Grove, IL: InterVarsity, 1997.
- Martin, R. P., *Philippians*, NCB, London: Oliphants, 1976.
- Mounce, Robert H., *The Book of Revelation*, rev. ed., NICNT, Grand Rapids: Eerdmans, 1977.
- Oakes, Peter T., *Philippians: From People to Letter*,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1.
- O'Brien, Peter T., *The Epistle to the Philippians: A Commentary on the Greek Text*, NIGTC, Grand Rapids: Eerdmans, 1991.
- Peterlin, Davorin, *Paul's Letter to the Philippians in the Light of Disunity in the Church*, NovTSup 79, Leiden: E. J. Brill, 1995.
- Sasse, H., “γῆ, ἐπίγειος”, *TDNT*, vol. 1, Grand Rapids: Eerdmans, 1993, 677-681.
- Sasse, H., “καταχθόνιος”, *TDNT*, vol 3, Grand Rapids: Eerdmans, 1993, 633-634.
- Sasse, H., “κοσμέω κτλ”, *TDNT*, vol. 3, Grand Rapids: Eerdmans, 1993, 867-898.
- Schreiner, Thomas R., *Paul, Apostle of God's Glory in Christ: A Pauline Theology*, Downers Grove, IL, InterVarsity, 2001.
- Silva, M., *Philippians*, 2nd ed., BECNT, Grand Rapids: Baker, 2005.
- Stowers, Stanley K., “Friends and Enemies in the Politics of Heaven: Reading Theology in Philippians”, Jouette M. Bassler, ed., *Pauline Theology*, vol. 1, Atlanta: Society of Biblical Literature, 2002.



<Abstract>

## **An Exegetical Consideration of the Korean Translation of Philippians 2:10**

Prof. Chung-Hyeon Cho  
(Nam Seou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propose an alternative interpretation on Paul's triadic adjective expression, ἐπουρανίων καὶ ἐπιγείων καὶ καταχθονίων (Phil 2:10), which has been taken as masculine in the tradition of the Korean protestant Bible-translation.

For this, first of all, the whole poetic passage of Philippians 2:6-11 is placed within a broad context of 1:27-2:18, which is regarded as Paul's first exhortative section. In this section, Paul is concerned with the two problems that Philippian church faces, that is, external persecution and internal disunity. Because these two problems are interwoven throughout the epistle, they are not treated separately by Paul. Therefore, Philippians 2:6-11, which is the center of the whole exhortative section, cannot be grasped simply by a limited category of ethical humiliation. Rather, this passage is to be understood in terms of God's sovereign lordship.

There are several good reasons to take Paul's triadic phrase as masculine. Initially, the point of Paul's triadic expression is to stress not classification or some specific cosmology, but the universality of the following proclamation. In other words, Paul uses the triadic phrase to describe the whole creation, whether animate or inanimate, as joining in the heavenly worship. Secondly, the verbal links between Philippians 2:6-11 and 3:20-21 support the position of taking the phrase as neutral. The phrase πᾶν γόνυ κάμψη κτλ (2:10-11) corresponds to τοῦ δύνασθαι αὐτὸν καὶ ὑποτάξαι αὐτῷ τὰ πάντα (3:21). Thirdly, the theme 'All things are subject to God' is also found elsewhere in Pauline writings. In 1 Corinthians 15:27-28 and Ephesians 1:22, for example, Paul uses this theme on the basis of Psalm 8:6. Lastly, the Philippians threefold division of the universe reflects the OT view of the totality of God's creation.

In conclusion, Paul introduces this problematic phrase into Philippians 2:10 to emphasize the totality of God's creation. Paul's triadic expression envisages all creatures, no matter what they may be, as joining in confession that Jesus Christ is the Lord. Therefore, the phrase should be translated into Korean without losing such a contextual orientation.